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성과 공유 교육 현안 논의 · 협력 방안 공유

남원시, 시연회 열고 드론 활용 응급의료 지원 체계 등 선보여

남원시는 26일 10시 운봉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이착륙장(운봉 백두대간 캠핑장)에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사업과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성과공유를 위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3차 지정’ 공모사업에 지난 2025년 7월 29일 최종 선정된 이후, 3개 드론 개발·제조기업과 함께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사업과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개발 성과물과 의료지원체계(AED 배송, 골드체인 배송) 연계하여 실증지원 사업을 고도화할 전망이다.

이날 시는 AED(자동심장충격기) 드론배송 시연회를 열어 드론을 활용한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선보였으며, 이번 시연은 응급환자 발생 시 배송드론 기체로 AED를 현장에 전달하는 드론 배송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금번 공모사업에서 운봉읍 덕산리 일원의 실증 공역을 지난해 7.06㎢에서 금년에는 14.46㎢로 2배 이상 확대해 드론 실증과 상용화의



남원시는 26일 10시 운봉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이착륙장에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사업과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성과공유를 위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효율성을 강화했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서는 ㈜와우미래기술, ㈜아세다, ㈜엘피스 등 3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실증을 진행 중이다. ㈜와우미래기술(대표 김문주)은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아세다(대표 김형준)는 수직이착륙(VTOL) 드론을 활용하여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드론배송(AED 배송 등) 기체 고도화, ㈜엘피스(대표 김병호)

는 의약품 골드체인 드론배송 서비스 구축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정성 인증 등 6종의 드론 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다. 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모사업에 2회 연속 지정되어 드론 비행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 순창교육지원청, 순창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순창군은 순창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 25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순창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순창군과 순창교육지원청 간 유기적인 교육 협력을 위한 공식 협의이며,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영일 군수와 남상길 교육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순창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29명이 참여한 고향사랑기부금 320만 원 기탁식과 생활안전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기탁금은 순창군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6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협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추진 △농촌유학 협력 추진 △고등학교 해외 역사문화탐방 지원 등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군은 2026년 교육경비 예산을 전년 대비 확대 편성에 학생 무상급식, 진로체험, 농촌유학, 고교 무상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순창의 특화 산업인 K·발효바이오와 농촌유학을 연계한 교육 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역



2025년 제2회 순창교육행정협의회 후

맞춤형 인재 육성과 청년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농촌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중학교까지 유학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됐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역사문화탐방과 진로탐색 프로그램도 지속 추진된다. 고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 대상의 해외 진로탐방 기회도 점차 확대해, 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다지고,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며,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인 만큼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정희원 소장 초청 플레이 아카데미 강연

남원시는 11월 25일 오후 7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저속노화 열풍을 이끈 정희원 소장을 초청해 “저속노화 마인드셋, 100세까지 잘 먹고 잘사는 방법” 플레이(Play) 남원 아카데미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100세 시대를 앞둔 우리 사회에 어떻게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지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강연뿐만 아니라 공연과 현장 질의응답이 어우러진 콘서트형 강연으로 구성되어 많은 참석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시민은 “요즘의 건강 화두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번 강연을 통해서 어떻게 100세까지 잘 먹고 잘사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올해 플레이(Play) 남원 아카데미는 인문, 건강, 소통 등을 주제로 방송인 타일러, 건축가 유현준 등 지역 내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각계의 명사를 초청하여 시민들에게 특별한 강연을 제공했다.

최경식 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플레이(Play) 남원 아카데미를 찾아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접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관내 수납대행점 일제 지도·점검 실시

순창군은 이날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군 금고를 포함해 수납대행점으로 지정된 NH농협 등 총 22개점 관내 수납대행점을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년간의 세입금 수납·분류·송금 적정여부와 장부 비치, 보관 관리상태, 금고 및 대행점 약정사항 이행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점검은 중점 조사표를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진행되며, 수납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빛났다

임실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경진대회서 우수기관 선정

임실군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잘 추진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과 사고 제로화 성과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2025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경진대회’에서 성과확산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농업인 단체, 유공자를 선정·포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전국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올해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해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4개 예방사업 확대 운영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 65회(2,216명) △여름철 운영질환 예방을 위한 진작원 현장 기술지원 48회를 실시했다.

또한,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 10회 △유관기관 협업 안전 물품 배부 △농업인 안전마를 위험 요소 제거 공사 등을 추진하며 농업인의 안전 문화 확산에 힘썼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업인 안전 365 릴레이 챌린지’에는 대표 농업인 단체가 모두 참여해 폭염 대응 안전 수칙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다. 이와 함께 군은 농작업 안전 분야 국고보조금 상반기 집행률 100% 달성, 안전 재해 예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사업관리와 성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 현장의정활동 펼쳐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요천둔치 잔디광장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지형적으로 여름철 수해에 특히 취약한 지역인 만큼, 향후 안전성과 재해 대응성을 최우선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시설 상태를 살피고, 공간활용의 개선과 주차장 확보 등을 지적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와 시설·장비 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민인공원 조성사

업으로 추진 중인 구 남원역사 및 풀랫폼 철거 현장을 방문해, 구 역사 철거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줄 것과 민인공원의 취지와 도심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산면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현장에서는 효율적인 폐열 활용을 해 줄 것과 안개가 잦은 대산면의 지형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자원봉사센터,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가져

순창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기자)는 김장철을 맞아 26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기 위해 ‘동절기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복나눔조리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순창군여성단체협의회, 청년회의

소, 센터 소속 자원봉사단체 등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완성된 김장김치는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300여 세대의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되어,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